

기고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 '블랙 아이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이치원 담양소방서 119구조대장



광주, 전남지역에 기온이 낮아지고 조만간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도로의 불청객인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각별한 조심을 당부하고자 글을 쓴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차량이 도로위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은 해보았을 것이다. 눈이 오고 기온이 낮아져 도로가 얼면 제동거리는 급격히 늘어난다.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 아이스는 눈, 비가 도로 위에서 먼지나 기름 등과 섞이면서 도로와 비슷한 색상을 띠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구분되지 않고 특히 눈이나 비 등이 내린 후 그늘진 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고가도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제동력 및 조향력 상실에 따른 교통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중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갑속 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평소보다 더 충분히 갑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나가야 한다.

빙판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미리 위험을 예측하여 제동 시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이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니 주행 전 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 공기압 확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특히 기상정보와 도로 위 동향을 잘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바람직한 기다리는 마음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기독교 문화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待降節)이 올해는 11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봉급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퇴직하는 날이 된다고 한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명절이나 생일처럼 기다리는 날이 있고, 시험을 치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림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과 시간을 말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인생 행로는 육체라는 몸을 정신이 운전하면서 종착역 향해 가고 있다. 기차는 가다가 정거장에서 멈춰다 떠나고 떠나면서 종착역 향해 달린다. 기차의 종착역은 내려 하차하는 곳이 되며, 일을 마치고 다시 차표를 사서 승차하여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승차는 일방통행의 차표로써 종착역에서 갈아타고 되돌아갈 수 없다.

기차를 타는 손님은 다음 역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종착역에 도착한다. 인생도 한해가 지나면 더욱 나은 다음 해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생 종착역인 죽음에 이른다. 인생의 기다림에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

가다리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신에게 갈구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남을 해치고 나를 앞세우려는 노력 없이 일확천금(一擲千金)을 노리는 기도는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마음은 온갖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지 남을 해치는 악의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박하는 사람이나 증권투자를 한 사람의 좋은 결과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기다림인데, 이러한 기다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 곡

식들은 잘 자라서 가꾼 농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 보답한다. 인생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성공하는 좋은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힘써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갖 노력을 했으면 한다.

가다리는 마음은 목적이 뚜렷하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며 일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기다리는 마음은 좋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씨앗인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최선을 다해 가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람은 기다림의 연속선에서 살다가 죽음으로서 끝을 맺는다.

지금 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 기다림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보람 있는 기다림 결과가 연속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이라 하는데 불가능을 기다림의 목표로 삼고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가능의 기다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채 반백 년이 넘었으며 온 국민이 바라는 기다림은 죽기 전에 남북통일을 보고 죽는 기다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온 국민이 기다리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만행을 한 가운데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인생 종착역이 가까워지는 노년의 기다림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종교적 신앙이 말하는 내세에 대해 기다림이다. 내세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림은 종교적 신앙이다.

내세가 없다면 인생은 죽음으로써 종말이 되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종교적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인생을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보고 영원한 삶의 내세에 미련을 가지고 믿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노력한 대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좋은 기다림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서, 바람직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기고

겨울철 3대 위험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박준영 강진소방서 소방사



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멀티콘센트는 허용 전력의 80%만 사용 하도록 한다.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매년 겨울철마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3대 위험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겨울용품의 안전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가연성물질인 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KS표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하며, 난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

능, 여촌지역의 난방을 담당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목재 등 가연물은 보일러 연통과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고 개폐시 화상에 주의하며,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넣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위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화재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어 무서운 화마로 돌변한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예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올겨울은 우리 모두가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